

사회복지현장실습이 진로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 성 남*

Social work field training awareness on the impact of the research career

Seong-Nam Jeon*

요 약

본 연구는 사회복지현장실습이 전문직업인으로서 성장하는데 있어 진로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연구대상은 G지역 4년제 대학교 사회복지전공학생 198명을 목적표집에 의하여 조사하였으며, 자기입식 설문을 통하여 진행하였다. 분석방법은 대상 및 변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및 기술분석, T-test, F-test, ANOVA, 상관관계(correlation), 회귀분석(regression)을 위해 SPSS 14.0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요인으로 실습생이 개인의 의사가 반영($\beta = .197$)되는 것과 사회복지학 전공을 선택한 것에 대해 만족감($\beta = .205$)이 사회복지전공학생의 진로정체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개인요인으로 자신이 사회복지학을 전공으로 선택한 것에 만족감($\beta = -.291$)을 느끼는 경우와 부모가 사회복지학을 전공으로 선택한 것에 만족감을 느끼는 경우 사회복지전공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개인요인으로 개인의사 반영($\beta = .156$)이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 Keywords : 사회복지현장실습, 진로의식, 사회복지전공학생

Abstract

In this study, the social welfare field training course there is a growing awareness as professionals in order to verify the impact was conducted.

G-local four-year university study social work majors by sampling 198 people were examined for the purpose, through self - survey was conducted.

Materials and analytical methods in order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a variable frequency, and technical analysis, T-test, F-test, ANOVA, correlation (correlation), Regression (regression) was used for the SPSS 14.0.

•제1저자 : 전성남

•투고일 : 2014. 5. 9, 심사일 : 2014. 5. 16, 게재확정일 : 2014. 5. 26.

* 광주동구시니어클럽 (GwangJu DongGu Community Senior Club)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ersonal factors of the individual physician trainees reflect ($\beta = .197$), and then the same about Social Welfare satisfaction ($\beta = .205$) of the Social Welfare majors had significant impact on career identity. Second, the personal factors they chose what to major in social work satisfaction ($\beta = -.291$), and if you feel you select a parent with a major in Social Work and Social Welfare major students feel the satisfaction of having a significant effect on the level of career decision crazy. Third, individual reflect personal physician factors ($\beta = .156$) is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behavior of career preparation

▶ Keywords : Social welfare field training, Career awareness, Social work majors.

I. 서 론

사회복지현장실습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실천기술을 사회복지실습현장에 적용해봄으로써 자신이 예비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실천현장을 탐색하고 배우는 것이다.

사회복지현장실습은 보편적 교육과정의 구성요소로서 현장실습(field-work), 현장경험(field-experience), 실습교육(field-instruction), 실습(practice), 현장교육(field-education) 등 다양하게 불리나 통상 사회복지현장실습이나 사회사업실습 혹은 현장실습으로 불리며,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에서 교육시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은 강의실에서 배운 지식과 개념들을 실제 상황에 적용함으로써 전문교육의 특성인 실제적 상황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생의 실천적 지식, 기술 및 가치관을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핵심 교과과정으로 실습생들에게는 사회복지교육과정에서 가장 생산적인 경험이 되며 교육자들에게는 사회복지현장실습생의 사회복지에 대한 사명감과 타인과 더불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시험해 볼 수 있고, 지식을 적용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터득하고, 사회복지교육의 여러 과목들을 통합하여 유능한 실천가로 교육 훈련하는 것이다[1].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중고등학교에서의 체계적인 진로지도의 부재와 사회적 고학력화 추세로 인하여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일단 대학에 진학하고 보자는 사회적 분위기가 일반화되어 있어 막상 대학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많은 갈등과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2].

그 동안 대학교육이 취업보다는 입학에 초점을 두면서 진

로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한 것은 사실이다. 대학교육을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을 반영한 듯 빠른 속도로 취업중심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대학교육과 현장교육의 차이점을 논의하는 것은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었다.

특히, 사회복지분야에서도 대학생 시기에 이루어지는 진로선택이나 결정이 장래 삶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발달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어느 시기보다도 개인이 잘 준비해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과 기능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이 사회복지실천에 대해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인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회복지라는 학문이 실천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강의중심의 교육체계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정확한 진로결정 및 진로준비를 지원하는 학생중심, 실용학문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변화해가야 한다.

사회복지현장실습의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 자격발행을 살펴보면 정규교육과정으로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외국대학, 학점은행으로 전문대학, 대학교, 시간제이고, 양성교육, 기타로 구성되어 다양한 곳에서 양성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사회복지인력이 다양한 곳에서 배출되고 있는 반면 사회복지실천현장에 많은 사회복지사를 채용할 수 없어 미취업 및 높은 이직률이 나타나고 있다. 사회복지학과 졸업생들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진로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고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준비는 더욱 중요하다.

또한, 현재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준비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면 첫째, 사회복지학 전공대학생들은 전공교과목 이수 외에 별도의 진로준비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정해진 교과목에서도 전공필수과목과 학점 취득이 비교적 수월한 과목만을 선택하고 사회복지실천에서 중요하지만 어려운 과목은 피해가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들의 실무에 필요한 준비 및 적응능력 부족을 들 수 있다[3].

사회복지학문이 현장의 실천학문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학에서 입학과 이론적 교육에 비중을 두고 진행해 왔다.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을 통해서 사회복지사로 진로의식을 기반으로 직업의식을 갖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정부는 산업 전반에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NCS)을 도입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에 사회복지학과에서도 사회복지현장에 가까운 국가직무능력 표준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양성에 노력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실태와 문제점,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현장실습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수퍼비전을 중점을 하는 연구, 사회복지현장실습 만족도 및 성과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현장실습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사회복지현장실습이 사회복지전공학생들의 진로 및 직업의식에 관한 영역에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최근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이 사회복지 전공학생들에게 단지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이론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회복지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실천 학문임을 강조하고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통해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인식과 사회복지기관이라는 조직에 속해 전문인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며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며 향후 전문직업인으로서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언하고 진로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절한 사회복지현장실습지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사회복지현장실습 및 진로발달의 개념

1.1 사회복지실습 개념

사회복지실천은 사회정의의 증진하고 이용자에게 효과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인 및 가족의

기능 및 역량강화를 통해서 개인 혹은 지역사회복지를 실현하려는 응용학문으로, 사회복지 교육의 본질적은 개인, 가족,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전문적으로 실천하게 하기 위한 훈련에 있다.

또한, 사회복지학문은 학교에서의 이론적 교육과 사회복지현장을 기반으로 하는 충분한 실천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 실습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개념들을 실제 클라이언트, 집단, 지역사회에 적용함으로써 학생의 전문적 사회복지사로서의 성장을 돕는 과정인 것이다.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실천학문으로서의 사회복지학의 역사와 함께 하는 사회복지교육 과정의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교과과정으로,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과과정하면서도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이중적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해 학교와 현장이 동일하게 책임져야 하는 특수한 교과목으로 교육시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 기술, 소양들을 실제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전문교육의 특성인 실천현장 속에서 학생의 실천적 지식, 기술 및 가치관을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교과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4].

1.2 진로발달(career development)의 개념

진로발달(career development)은 개인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한 과정[5]으로 일의 가치를 발전시키고, 직업체성(vocational identity)을 구체화하며, 직업기회를 배우고, 시간제/전일제 환경 또는 여가선용을 계획하고 발전시키는 것[6]을 말한다.

진로발달은 모든 사람에게 사용되기보다는 개인이 자신의 전 생애과정을 통해 수행하고자 하는 일에 목표를 두고 접근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진로발달을 '사회복지사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고함을 갖고 있으며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인으로 목표, 흥미, 능력에 대해 명확하고 안정된 진로의식을 갖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 행동으로 노력하는 과정'으로 보았다.

2. Harren의 진로의사결정모델

Harren(1979)은 대학생 연령의 진로의사결정에 초점을 맞추어 진로발달과 진로의사결정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변인들을 고려한 광범위한 모형을 발달시켰다.

진로결정에 대한 모델은 몇 차례의 연구를 거쳐 수정되어 왔는데 인용되는 것은 다음의 4가지 단계의 과정으로 구성되는 진로의사결정 모델이다.

진로결정에 대한 Harren의 모델은 만족스러운 진로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자신의 이론에 포함된 의사결정의 과정, 의사결정의 특징, 학생이 당면한 발달과업, 그리고 의사결정 상황에 대한 환경요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첫째, 인식단계는 현재 진로계획이 없어서 불행하다는 것을 느끼는 상태이다. 불만족의 원인을 확인할 때 더욱 현실적이고 적절한 선택이 가능하게 된다.

둘째, 계획단계에서는 양자택일, 확장, 조사와 구체화의 협소화 과정에 대해 명확히 하고 있다. 불만족의 근원을 이해하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수립함으로써 자신에 대해 더욱 잘 알 수 있고 불만족에 적절히 대응 할 수 있다. 특히 계획 단계에서는 자기 자신과 직업 세계에 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비로소 직업에 대해 잠정적인 결정을 내릴 준비를 갖추 수 있다.

셋째, 확신단계에서는 자신이 계획했던 것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이러한 결정을 내린 동기를 친한 친구, 부모 등과 함께 의논해보고 그들의 반응을 얻는다. 학교생활에서 주위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을 얻는 것은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넷째, 이행단계에서는 자신이 내린 결정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Harren은 진로의사결정 유형을 합리적, 직관적, 의존적이라는 세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러한 의사결정 유형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진로의사결정 수준은 학교에 대한 적응수준, 직업계획수준, 전공에 대한 확신 및 이해 수준으로 분류하였다(7).

본 연구에서는 Harren의 진로의사결정모델을 근거로 인식단계를 진로정체감, 계획단계, 확신단계를 진로결정수준, 이행단계를 진로준비행동으로 구분하였다.

3. 선행연구

3.1 사회복지현장실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현장실습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실습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조사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주로 실습의 주요구성요인에 따른 실습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전문직 정체성과 관련된 연구가 부분적으로 있었고 진로의식에 대한 부분은 거의 없었다.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구성요인들은 사회복지현장실습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요인, 기관요인 등이 있다.

첫째, 개인요인으로 사회복지현장 실습생들은 실습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인식하며 의사결정 및 업무과정에 솔선하여 이를 능동적으로 활용하며,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실습생들은 자원봉

사 활동과 현장 경험, 삶의 경험, 학업 내용들을 반영해 보아야 한다. 이는 실습현장에서의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험들이다(8).

사회복지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실습생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진로의식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강희자(2003), 조수민(2006), 김선환(2007), 엄미선·김선아·곽지영(2009)의 연구에서 보면 사회복지실습생 개인이 실습 이전에 경험했던 요인들과 실습생의 개인의 특성에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관요인으로 사회복지현장 실습기관은 학생들이 학습의 기회를 최대한 가질 수 있도록 참여할 합의를 되어 있어야 한다. 실습지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다른 교과목에 비하여 가장 긴 시간을 투자하고, 실습을 통하여 자신을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사회복지사로 성장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단순히 현장을 경험하는 것으로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9).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은 실습지도자에게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지도할 수 있는 시간, 공간, 장비, 예산, 지역사회관계망 등을 최대한 배려하며 기관의 직원 전체가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최미경(1998), 김선환(2007), 엄미선·김선아·곽지영(2009)의 연구에서 보면 기관의 지원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실습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3.2 진로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진로의식을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진로정체감은 사회복지사로서 직업에 대한 자신의 흥미, 목표, 능력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된 상(picture)을 말하고, 진로결정수준은 사회복지학 학생으로서 진로선택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진행수준과 미래의 진로에 대한 확고한 정도를 의미하고, 진로준비행동은 사회복지현장이 구체적이고 실천적이라는 측면에서 미래직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형태의 차원이라고 본다.

김선환(2007)은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개인요인과 기관요인이 진로의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고, 정진희(2012)는 인지적측면의 진로결정수준과 행동적측면의 진로준비행동에서 전공선택 내적동기, 개입기술, 효능감, 가족의 사회적 지지, 소속감, 사회적접촉, 의사소통에 따라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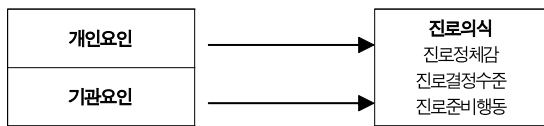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독립변수를 개인요인과 기관요인, 종속변수는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수준, 진로

준비행동으로 분류하였다. 독립변수는 개인요인으로 이지은(2002), 김정훈(2005), 조수민(2006), 김선화(2007)의 연구에서 진로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변수로 설정하였다. 개인적 특성은 실습시기, 성별, 실습기관유형, 실습기관선정시 본인의사변영정도, 전공 선택이유, 실습생 전공 선택 만족감, 부모의 전공 선택 만족감, 실습기관 자원봉사경험, 실습과정 성실수행여부 등으로 측정하였다. 기관요인으로는 유동철(1998), 김주리(1992), 김선환(2007)의 연구에서 제시한 기관의 실습환경 수준, 기관 실습내용 만족도 등으로 측정하였다. 종속변수로는 Harren의 진로의사결정모델을 근거로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을 측정도구로 구성하였다. 진로정체감은 Holland와 Daiger 및 Power(1980)의 연구에서 제시한 자신의 진로계획에 대한 질문지, 진로결정수준은 Osipow(1990)의 진로결정검사(Career Decision Scale)를 고향자(1992)가 번안한 질문지, 진로준비행동은 김봉환(1997)의 연구에서 개발한 질문지의 내용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사회복지현장실습과 진로의식에 관한 이론적 근거를 위해서 국내·외 관련 문헌 및 자료들을 수집 분석하였다. 그리고 사회복지현장실습 경험이 사회복지학 학생들의 진로의식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현장실습의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복지현장실습을 경험한 학생들의 진로의식정도를 파악하여 진로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G광역시 4년제 대학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0년부터 2012년에까지 사회복지현장실습에 참여한 대상으로 총 198명의 조사 응답결과를 분석 사용하였다.

3. 분석방법

설문조사 결과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작업(coding)과 오류 검토 작업을 한 후, SPSS14.0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구체적인 실증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뢰도 검사(reliability test):척도의 신뢰도를 검사하기 위해 Reliability Analysis의 Cronbach's alpha값을 통해 사회복지현장실습 주요요인, 진로의식(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 진로정체감)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둘째, 기술적 통계분석, T-test, F-test, ANOVA, 상관관계(correlation), 회귀분석(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표본의 특성

본 연구는 G광역시 4년제 대학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0년부터 2012년에까지 사회복지현장실습에 참여한 대상으로 총198명의 조사 응답결과를 분석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검증

본 연구에서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 요인분석의 적재값을 나타냈다. KMO(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는 0.853이고 유의확률은 0.000으로 전체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개의 요인에 대해 베리맥스 직교회전(Varimax Rotation)에 의한 요인 적재값을 산출하였다. 신뢰도 분석에서는 〈표 1〉에서 제시한 신뢰도 분석과 같이 진로의식(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 진로정체감)과 기관요인(실습환경수준, 실습내용 적절성)에 대한 Cronbach α 계수가 모두 0.6이상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0.6이상을 기준으로 신뢰성을 평가하므로 본 연구에서 구성하는 요인들의 항목들은 신뢰할만하다고 볼 수 있다.

표 1. 설문 문항의 신뢰도 분석

변수		문항수	신뢰도 (Cronbach's α)	점수의의미
기관 요인	실습환경수준	12문항	.914	점수가 높을수록 실습환경수준이 높음
	실습내용 적절성	9문항	.839	점수가 높을수록 실습내용수준이 높음
진로 의식	진로결정수준	18문항	.814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 높음
	진로준비행동	16문항	.887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에 적극적
	진로정체감	18문항	.863	'아니오'(0)에 대답 수가 많을수록 정체감 높음

3. 기술적 통계분석

3.1. 개인요인으로 실습과 관련된 일반적 특성

개인요인으로 실습과 관련된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실습 시기는 2010년 105명(53%), 2011년 89명(44.9%), 2012년 4명(2%)이었다. 성별은 남자 58명(29.3%), 여자 140명(70.3%)이었으며, 응답자가 실습을 했던 기관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관 108명(54.5%)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복지 이용시설 및 생활시설 32명(16.2%), 연합회, 협회, 재단 28명(14%), 기타 12명(6.1%), 의료시설 11명(5.6%), 사회복지관련 상담소 5명(2.5%), 시민단체 2명(1%)순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 대부분이 사회복지관을 이용하여 실습을 하는 것은 이들 기관들이 사회복지 실습에 대한 경험과 실습지도자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실습생들이 사회복지 실천을 일차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에서 실습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어 사회복지관을 더 선호하는 것 같다. 실습기관을 선정하는데 있어 실습생 본인의 의사가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정말 그렇다 96명(48.5%), 대체로 그렇다 84명(42.4%)로 90.9%의 실습생들이 대체로 본인이 실습하기 원했던 곳에서 실습을 경험했음을 알 수 있다. 전공을 선택한 이유로는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 때문에 119명(60.1%)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주변사람들의 권유로 24명(12.1%), 취업이 잘될 거 같아서 16명(8.1%), 성적이 맞추다 보니 15명(7.6%), 타인을 돕고 싶어서 12명(6.1%), 기타 11명(5.6%), 종교적 이유로 1명(0.5%)순으로 나타났다. 실습생이 전공으로 선택하는 것에 대한 만족감은 대체로 그렇다 145명(73.2%)으로 가장 많았고, 정말 그렇다 34명(17.2%), 별로 그렇지 않다 18명(9.1%), 전혀 그렇지 않다 1명(0.5%)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 대부분이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전공 선택에 대한 만족감도 대체로 그렇다 130명(65.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별로 그렇지 않다 36명(18.2%), 정말 그렇다 30명(15.2%), 전혀 그렇지 않다 2명(1.0%)순으로 나타났다. 실습기관 자원봉사 경험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을 때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111명(56.1%)로 가장 많았으며, 상대적으로 거의 참여해본 경험이 없다 41명(20.7%)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기적으로 참여하였다 35명(17.7%), 기회가 있을 때 비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11명(5.6%)로 나타났다. 즉 실습기관 자원봉사 경험은 자발적으로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실습기간 동안 실습생이 얼마나 기관에서 제시한 실습과정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정말 그렇다 127

(64.1%), 대체로 그렇다 68명(34.3%)로 나타나, 대체로 실습에 참여하는 동안 기관에서 제시한 실습과정에 충실히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실습과 관련된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n)	백분율(%)
실습시기	2010년	105	53.0
	2011년	89	44.9
	2012년	4	2.0
성 별	남	58	29.3
	여	140	70.3
실습기관 유형	사회복지관	108	54.5
	사회복지 이용시설 및 생활시설	32	16.2
	의료시설	11	5.6
	사회복지 관련 상담소	5	2.5
	시민단체	2	1.0
	연합회, 협회, 재단	28	14.1
	기타	12	6.1
실습기관 선정시 본인의사 반영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2	1.0
	별로 그렇지 않다	16	8.1
	대체로 그렇다	84	42.4
	정말 그렇다	96	48.5
전공선택 이유	사회복지학문에 대한 관심 때문에	119	60.1
	취업이 잘될 거 같아서	16	8.1
	성적이 맞추다 보니	15	7.6
	주변사람들의 권유로	24	12.1
	타인을 돕고 싶어서	12	6.1
	종교적인 이유로	1	0.5
	기타	11	5.6
실습생 전공선택 만족감	전혀 그렇지 않다	1	0.5
	별로 그렇지 않다	18	9.1
	대체로 그렇다	145	73.2
	정말 그렇다	34	17.2
부모의 전공선택 만족감	전혀 그렇지 않다	2	1.0
	별로 그렇지 않다	36	18.2
	대체로 그렇다	130	65.7
	정말 그렇다	30	15.2
실습기관 자원봉사 경험	거의 참여해본 경험이 없다	41	20.7
	기회가 있을 때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111	56.1
	기회가 있을 때 비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11	5.6
	정기적으로 참여하였다	35	17.7
실습과정 성실수행 여부	별로 그렇지 않다	3	1.5
	대체로 그렇다	68	34.3
	정말 그렇다	127	64.1

3.2 실습생 개인적 특성과 진로의식과의 관계

실습생 개인적 특성과 진로의식(진로정체감,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t-test, F-test 분석결과를 보면 <표 3>과 같다.

첫째, 실습생의 성별, 사회복지학과 재학 여부, 진로계획, 진로 확신, 진로준비에 따라 진로의식(진로정체감,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에 평균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실습생의 성별, 사회복지학과 재학 여부, 진로계획, 진로 확신, 진로준비에 따라 진로의식(진로정체감,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의 평균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구분은 사회복지 재학생이 121명, 전공 선택이유는 학문관심이 119명으로 가장 많았고, 진로계획, 진로확신, 진로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의 평균은 진로정체감, 진로 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복지전공 선택이유에 따라 진로의식(진로정체감,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에 평균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F-test를 실시하였다.

사회복지전공 선택이유에 따른 진로의식의 평균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전공 선택 이유에 따른 진로결정수준의 평균은 학문관심 2.19, 취업 2.45, 성적 2.30, 주변권유 2.35, 돕고 싶어서 2.25, 종교이유 1.50, 기타 2.12로 취업을 이유로 인해 전공을 선택한 실습생의 평균 진로결정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실습생 개인적 특성과 진로의식과의 t-test, F-test

변인	빈도 (N)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			
		평균	표준 편차	t or F	평균	표준 편차	t or F	평균	표준 편차	t or F	
성별	남	58	1.66	.34	1.684	2.22	.43	-.417	2.53	.56	1.225
	여	140	1.56	.36		2.24	.39		2.42	.58	
재학 구분	사회복지 재학	121	1.61	.35	.834	2.20	.39	-1.252	2.44	.60	-.381
	사회복지 복수전공	69	1.56	.36		2.28	.41		2.47	.55	
전공 선택 이유	학문관심	119	1.61	.37	2.140	2.19	.40	2.222	2.52	.56	1.113
	취업	16	1.47	.37		2.45	.28		2.21	.49	
	성적	15	1.62	.30		2.30	.28		2.43	.66	
	주변권유	24	1.47	.33		2.35	.36		2.39	.52	
	돕고 싶어서	12	1.65	.38		2.25	.42		1.70	.77	
	종교이유	1	2.00	.30		1.50	.00		2.31	.57	
기타	11	1.63	.36	2.12	.59	2.45	.57				
진로 계획	예	148	1.60	.36	.765	2.22	.41	-1.880	2.48	.59	.990
	아니오	50	1.55	.35		2.38	.37		2.38	.52	
진로	예	96	1.68	.33	3.778	2.14	.40	-3.193	2.58	.59	3.040

변인	빈도 (N)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			
		평균	표준 편차	t or F	평균	표준 편차	t or F	평균	표준 편차	t or F	
확신	아니오	102	1.50	.35		2.32	.38		2.33	.53	
진로 준비	예	87	1.66	.34	2.717	2.13	.40	-3.483	2.62	.58	3.795
	아니오	111	1.53	.36		2.32	.38		2.32	.54	

4. 주요요인에 관한 회귀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회귀분석방법은 중다선형 회귀분석으로 진로의식을 구성하고 있는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 진로정체감 별로 독립변인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4.1. 실습요인에 따른 사회복지전공생의 진로 정체감

실습요인에 따른 사회복지전공생의 진로 정체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중다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실습요인들이 사회복지전공생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투입한 실습요인들의 진로정체감에 대한 설명력은 35.1%로, 이 모델은 유의도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된 실습요인 중에서는 개인요인인 실습생이 개인의 의사가 반영 ($\beta = .197$)되는 것과 사회복지학 전공을 선택한 것에 대해 만족감 ($\beta = .205$)이 실습생의 진로정체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유의도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기타 개인요인과 기관요인은 진로정체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실습요인 중 개인전공 선택 만족감과 개인의사 반영이 실습생의 진로정체감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진로 정체감이란 자신의 목표, 흥미, 성격, 재능 등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을 의미한다. 개인의 성향과 특성이 가장 많이 반영되는 특성으로 개인의사 반영이 사회복지전공학생의 진로 정체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회복지전공학생의 개인적인 특성과 생각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진로정체감 수준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4. 실습요인에 따른 사회복지전공생의 진로정체감 회귀분석 결과

변인	진로정체감			
	기울기 (B)	표준 오차	표준화된 β 값(Beta)	t값
상수(Constant)	.919	.266		3.457

변인		진로정체감			
		기울기 (B)	표준 오차	표준화된 β (Beta)	t값
개인 요인	개인의사 반영	.104	.038	.197	2.781*
	실습기관 유형	-.094	.055	-.118	-1.713
	실습생 성별	-.024	.038	-.045	-.640
	전공 선택 이유	.004	.014	.017	.253
	실습생 전공 선택 만족감	.140	.053	.205	2.655*
	부모의 전공 선택 만족감	.050	.044	.084	1.124
	실습기관 자원봉사 경험	.000	.026	.001	.008
	기관의 실습환경 수준	-.060	.084	-.083	-.705
기관 요인	기관의 실습내용 적절성	.038	.091	.049	.417
	설명력(결정계수, R2) F비	.351 2.934*			

종속변수: 진로정체감 *p<.05

4.2 실습요인에 따른 사회복지전공생의 진로결정수준

실습요인에 따른 사회복지전공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중다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실습요인들이 사회복지전공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투입한 실습요인들의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설명력은 18.5%로, 이 모델은 유의도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된 실습요인 중에서 개인요인인 자신이 사회복지학을 전공으로 선택한 것에 만족감($\beta = -.291$)을 느끼는 경우, 부모가 사회복지학을 전공으로 선택한 것에 만족감을 느끼는 경우 사회복지전공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유의도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타 개인요인과 기관요인은 실습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습을 마친 사회복지전공생들은 자신이 사회복지학을 전공으로 선택한 것에 만족감을 느낄수록, 부모가 사회복지학을 전공으로 선택한 것에 만족감을 느끼고 지지할수록, 졸업 후 사회복지실무자로서의 진로결정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실습요인에 따른 사회복지전공생의 진로결정수준 회귀분석 결과

변인		진로결정수준			
		기울기 (B)	표준 오차	표준화된 β (Beta)	t값
상수(Constant)		3.406	.288		11.833
개인 요인	개인의사 반영	-.077	.041	-.128	-1.881
	실습기관 유형	.025	.059	.029	.428
	실습생 성별	.056	.041	.093	1.369
	전공 선택 이유	-.002	.015	-.008	-.122
	실습생 전공 선택 만족감	-.223	.057	-.291	-3.917*
	부모의 전공 선택 만족감	-.096	.048	-.145	-2.014*
	실습기관 자원봉사 경험	.007	.028	.018	.264
	기관의 실습환경 수준	-.014	.091	-.017	-.151
기관 요인	기관의 실습내용 적절성	-.010	.098	-.011	-.099
	설명력(결정계수, R2) F비	.185 7.747*			

종속변수: 진로결정수준 *p<.05

4.3 실습요인에 따른 사회복지전공생의 진로준비행동

실습요인에 따른 사회복지전공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중다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와 같다.

실습요인들이 사회복지전공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투입한 실습요인들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설명력은 33.1%로, 이 모델은 유의도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된 실습요인으로 개인요인인 개인의사 반영($\beta = .156$)이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유의도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개인의사 반영이 사회복지전공학생의 진로정체성뿐 아니라 진로 준비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개인의 의사가 반영되는 경우 자신이 선택한 사회복지학에 만족감을 느끼고 그에 따른 진로준비와 행동적 실천도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6. 실습요인에 따른 사회복지전공생의 진로준비행동 회귀분석 결과

변인		진로준비행동			
		기울기 (B)	표준 오차	표준화된 β (Beta)	t값
상수(Constant)		1.398	.433		3.228
개인	개인의사 반영	.133	.061	.156	2.173*

변인	진로준비행동				
	기울기 (B)	표준 오차	표준화된 벡터(Beta)	t값	
요인	실습기관 유형	-.105	.089	-.083	-1.183
	실습생 성별	.033	.061	.038	.535
	전공 선택 이유	-.028	.023	-.086	-1.231
	실습생 전공 선택 만족감	.072	.086	.066	.840
	부모의 전공 선택 만족감	.076	.072	.080	1.061
	실습기관 자원봉사 경험	.073	.042	.121	1.735
기관 요인	기관의 실습환경 수준	-.174	.138	-.151	-1.263
	기관의 실습내용 적절성	.240	.148	.194	1.626
설명력(결정계수, R ²) F비		.331 2.239*			

종속변수: 진로준비행동 *p<.05

V. 결론

본 연구는 사회복지현장실습이 전문직업인으로서 성장하는데 있어 진로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연구대상은 G지역 4년제 대학교 사회복지 전공학생 198명을 목적표집에 의하여 조사하였으며, 자기기입식 설문을 통하여 진행하였다.

분석방법은 대상 및 변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및 기술분석, T-test, F-test, ANOVA, 상관관계(correlation), 회귀분석(regression)을 위해 SPSS 14.0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전공 선택이유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진로의식수준의 평균은 학문관심 2.19, 취업 2.45, 성적 2.30, 주변권유 2.35, 돕고 싶어서 2.25, 종교적 이유 1.50, 기타 2.12로 취업을 이유로 인해 전공을 선택한 사회복지전공학생의 평균 진로결정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인요인으로 실습생이 개인의 의사가 반영($\beta = .197$)되는 것과 사회복지학 전공을 선택한 것에 대해 만족감($\beta = .205$)이 실습생의 진로정체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개인요인으로 자신이 사회복지학을 전공으로 선택한 것에 만족감($\beta = -.291$)을 느끼는 경우와 부모가 사회복지학을 전공으로 선택한 것에 만족감을 느끼는 경우 사회복지전공

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넷째, 개인요인으로 개인의 의사 반영($\beta = .156$)이 진로준비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를 중심으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교육이 취업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교육을 사회복지현장에 맞추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중심으로 학생상담과정, 학생진로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정보관리를 통한 학생지도가 필요하다.

둘째, 사회복지현장 자원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게 되면 학교교육과정과 함께 사회복지현장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이용자와 기관 종사자와 자주 접하도록 해서 이용자와 기관종사자를 이해하고 자신스스로 진로의식을 갖도록 하는 지도가 필요하다.

셋째, 사회복지현장중심의 직업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전공학생들에게 사회복지사라는 직업교육을 통해서 자신 스스로가 사회복지윤리와 가치를 겸비한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에서 학습한 이론과 실천내용들을 통해 자신의 직업적 가치와 부합하는 지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사회복지 전공학생들이 건전한 사회복지인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넷째, 사회복지관련 대학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관련 14개 과목을 사회복지현장실습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실기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론중심의 수업보다 실기를 통해서 예비사회복지사로서 진로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 [1] Fortune, A. E., 1994, "Field education. In F. G. Reamer(Ed)., The Foundatins of Social Work Knowledg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2] Kim Bong-Hwan · Kim Byung-Suck · Jyung Chyul-Young, 2006, Career counseling, Hakjisa Pudilsher.
- [3] Jeong Jin-Hee, 2012, Factors Influencing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Social Welfar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Honam University. 2.
- [4] Kim Sun-Hee · Cho, whee-il, 2000, Social Welfare practice, yswpub.
- [5] Kim Kye-hyun, 1995, Counseling Psychology,

Hakjisa Pudilsher.

- [6] Kim Choong-Ki, 1995, Career Education for the Future, yswpub.
- [7] Kim Sun-Hwan, 2007, The study on the impact of social work practicum on career development,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11-12.
- [8] Bogo, M & Vayda, E, 1998, "The practice of field instruction in social work theory and process, Columbia University Presee.
- [9] Park Mi-Jung, 1999, "A Study on Process and Content of Field Instruction of Community Center" Department of Social Work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Women's University.

저 자 소개



전 성 남

2007 : 조선대학교 사회복지학박사

2000~2005 : 프란치스코의집 시설장

2005~2012 : 조선대학교

노인복지센터 시설장

2012~현재 : 동구시니어클럽 관장

관심분야 : 사회복지

Email : jsnsw@korea.com